
第11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8年11月2日(月) 午後3時 開式

第11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議事擔當官 張正愚)

(15時 03分 開式)

○議事擔當官 張正愚; 지금부터 제110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箕英 議長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金箕英;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입동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10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회기는 오는 11월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짧은 기간 열리게 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금년도 주요사안에 대해 처리하고 준비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기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97회계년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오는 11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사전준비와 충분한 의정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며 수렴하신 생생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때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나아가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되어 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제5대 의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의정참여는 물론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지방의원과 지역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모체가 되어 각종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IMF체제는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루빨리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난 제 108회 임시회에서 실업자대책과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난 극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제11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議事擔當官 張正愚;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時 10分 閉式)